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남을 탓하면 밖으로 꼬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도 없이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다든가 이 의미가 얼마나 기쁘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걸음걸이가 헛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과 헛되지 않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항상 내 가슴에 사무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다는 게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은 숭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남의 모습을 보고 닮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바깥으로 꼬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웠던 길에 어떠한 게 조금 잘못됐든 잘못됐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어디가 뭐가 떨어졌으면 주워서 얹어놓고, 또 밥을 굶는 사람을 보면 밥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됐고 웃이 없는 사람은 같이 나누어 입으면 됐죠. 남한테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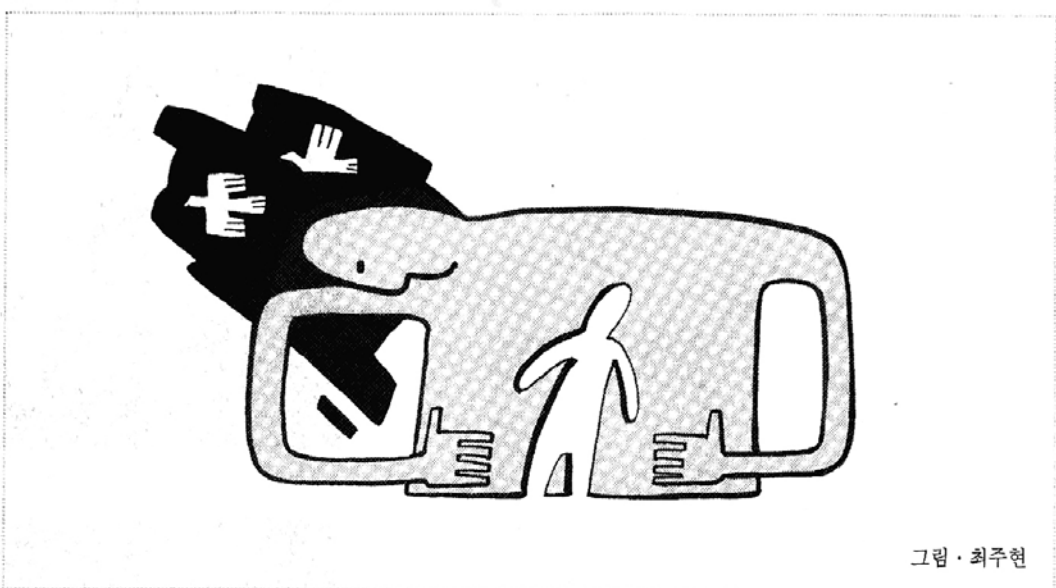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살다가 또 다시 따뜻한 데로 오게 되는 그 길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추운 데서 오다보면 거슬러 올라오는 게 1/3 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조금 못 된다고 봐야죠.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새끼를 낳으러 오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가지고 또 거기에서부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새끼를 낳아야 할 데니까 땅 속을 기어야 합니다. 땅속으로 기어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알을 배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오는 도중에 만약에 잡혀먹는다면 다시금 또 한번 일년이 가든지 일생이 넘어갑니다. 해어(海魚)로 바서는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처럼. 그러나 그렇게 일생이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금 또 환도를 해야 하니 그 얼마나 모진 고생이겠습니까? 그리고 새끼를 낳는다는 건 결국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먹질 않고 와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연남이와 연년이 두 부부가 배가 고프면 배를 움켜잡고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조금 입에다가 넣었다가 뱉으면서 입을 축여가면서 굶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도 낳을 수 없거니와 새끼를 낳고 나서 바로 자기는 그 새끼가 되어야 하니까요. 연어가 되어야 하니까. 연년이 되고 연남이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 고생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데, 땅속으로 기어오는 게 겨우 1/3이고 그 중에서 또 거의 가가이 기어오는 게 1/3이 돼요.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왜가지고서 또 바로 물위로 떠야 돼요. 새끼를 낳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 즉 깨닫고 정갈하고 알고 그런 데를 찾아야. 자기가 탄생한 고향을 찾는 거죠. 다 똑같은 땅인데도 우리가 고향을 알았이, 똑같은 자갈밭이고 똑같은 맑은 물인데도 자기 고향을 알았이.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공부, 이복이면 이복,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 이렇게 고향을 알았이. 어쩌면 그렇게 해어들도 자기 고향을 잘 아는지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데도 고향을 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이? 거기서 새끼로

16면으로 계속

남에게 칭찬 받으려 하지 말고 가는거 잡거나 오는거 막지 말며 오직 관하고 정진하는게 공부예요

말을 한번 하고 우리 용공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스님네들도 스님도 신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스님네들도 신도가 잘못되고 잘못되고 이쁘고 밋고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하고, 신도님들도 스님네들이 밋고 이쁘고 또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봐서는 안됩니다.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맞습니다. 옛것저것 얘기했지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철 놀러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못 싸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잘 입는 사람도 있고 못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입고 '왔든' 못입고 왔든, '한 짐지고 왔든' 한 짐 못지 않고 왔든, '한 짐지고 왔든' 다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곤 하는 것이죠. 인생살이의 반복된 이 쳇바퀴 돌 듯 하는 이 진리를 우리 파악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이 모순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스님네들이 생각하는 것 또 스님네들이 이 도량에서 행하는 법과,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행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철을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서 머리끄덩이 중이 된

는 게 아니라 금새 그자리에서 봤으니까, 본 게 인연이니까 하고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남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좇아가서 할려고 하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오직 공부하는 데는 그저 관하고 정진하는 것, 모든 것은 바깥으로 꼬달리는는 안된다는 점, 이것이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는데 참 배가 고프고 추웠습니다. 뿔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송기도 하고 해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어디서 비둘기 두 마리가 날아오더니 불에 뛰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비둘기는 사냥꾼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살아 생전에 외아들을 길렀는데 참 너무 사냥을 많이 하고 살생을 많이 하니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그만 비둘기로 화해 가지고서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아이를 배고파서 애틁 쓰니까 그대로 불로 뛰어든 것입니다. 구워지면 으레히 그걸로 배를 채우려니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기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연쇄적으로 또 받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더군요. 그걸 보고 산을 지나가면 어느 스님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철왔다 돌아가는 반복의 뜻 알아야 부모 마음과 부처님 자비심 똑같아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화해서 당신 하나를 끝내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닐때 쫓아다니면서 배고플 때는 뿔 물어다가 당신한테 물어뜨려 주었고 추우면 통치어 이끌어주었고 낭떠러지에 가게 되면 떨어질까 더이상 앞을 못가게 막아 주었고 이렇게 여지껏 보호해주셔서 살아온 그 은공도 바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인도환생을 못하고 당신을 위해서 비둘기로 환생을 했으니 어머니의 가혹한 그 자비심은 어떻게 할 거며,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자 부처님의 도리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똑같으니까.”하고 그 스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곡을 하면서 “미처 몰랐습니다” 하고선 구워졌던 비둘기 두 마리는 산에다가 묻고 또 묻고는 손으로 두들기면서 “참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선 그냥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제는 인도환생을 하셔서 또다시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마시고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셔서 오직 이렇게 못한 저같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선 “전체의 어머니가 돼주십시오. 전체의 아버지가 돼주십시오.”하고 울었습니다.

그뒤부터 그 스님을 좇아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참 어느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가에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어떤 부부냐 하면요, 남자는 연남이라고 하는 남자구요, 여자는 연년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물 바깥을 못 나고 사는 연남이와 연년입니다. 그런데 그 연남이와 연년이 부부는 꼭 자기네 집으로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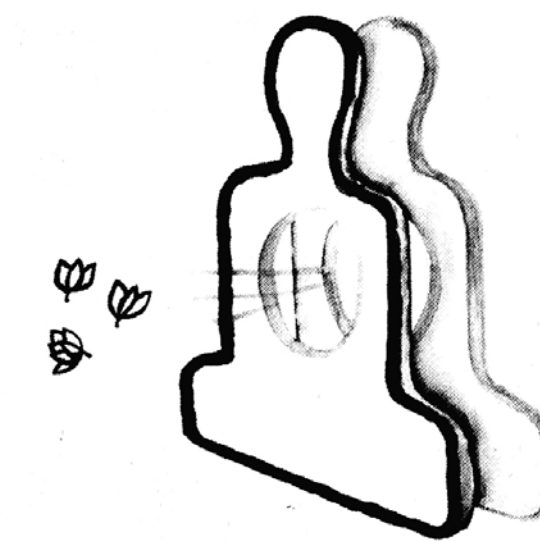
생활 속의 불교

나쁜 환경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배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간에 결국에는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을수록 경계 되는데 내가 경계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억 전으로부터 지어 온 것의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경계가 되고 오늘의 경계가 업이 되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계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한다면 그 경계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무게를 보태어 미래라는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나를 향해 안쪽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이다. 오직 비취 보일 뿐 애중이나 호오에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번뇌도 불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펼 펼쳐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볼수록 공공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인가. 경계가 딱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처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당연시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의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닦혔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닦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괴움,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실기무처럼 일어난 것이다. 원주돌처럼, 번개 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안팎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경계를 결코 돌로 보지 말라.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 보지 말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혹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 도 굴하지 말라.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계는 필경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인 때문이다. 결코 동요하지 말라. 부처는 마왕이든 신중이든 모든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해 일이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승속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다.

모든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풀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돌같이 다스리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계가 닦쳐온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지 남을 중용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 감사하는 환희의 웃음 면 덜얼만큼 공부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닦치더라도 절절 웃어버린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닦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연히 흘러 보인다. 닦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에 응대하는 여지 이리도 서로 다르겠는가. 실로 수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은 바로 거것 자기 때문이니, '나' '나의 것'이라는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협찬: 주인공